

미디어 창의파크·천년 정원·새천년 공원 조성

광주시·전남·전북도, 전라도 천년 프로젝트 본격 가동
천년사 편찬, 슬로건·엠블럼 제작 등 6건 공동 추진도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가 올해 전라도 천년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이들 3개 광역자치단체는 15일 “‘1018년’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전라도 천년 기념일을 ‘2018년 10월18일’로 정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자치단체는 지난해 3월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열고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 30건’을 확정했다. 이 기념사업은 4600여 역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4년까지 진행하게 된다.

이 중 광주시는 전라도 이미지 개선과 문화유산 복원을 목적으로 ▲전라도 천년 연중 캠페인 ▲천년기념 스탬프 투어 ▲전라도 천년맞이 타종식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천년의 꿈’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공연 ▲천년 기념 해외 호남 향우 고향방문 행사 ▲광주 회경루 중건 ▲천년의 빛 미디어 창의파크 조성 ▲무등산 남도피아 조성사업 등 9건의 자체사업을 진행한다. 또 지역간 화합과 상생 사업을 통한 유대감 확대를 위해 공동협력사업 6건도 추진한다.

공동협력사업은 ▲전라도 천년사 편찬 ▲전라도 천년 기념 슬로건 및 엠블럼 제작 ▲전라도 천년 기념 청소년 문화 교류 ▲전라도 천년 명품여행상품 운영 ▲2018년 전라도 방문의 해 운영 ▲전라도 천년 국내외 관광 홍보 등이다. 광주시는 특히 ‘천년의 빛 미디어 창의파크’를 새로운 미래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건립하며, 전남도는 ‘전라도 천년 정원’을, 전북도는 ‘전라도 새천년 공원’을 각각 조성할 예정이다. 또 올해 1월 1일 천년 맞이 타종식을 광주에서 연대 이어 3월에는 전남에서 천년 가로수길 조성 기념식을 개최하며 10월18

일에는 전북에서 천년 기념식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전라도 이미지를 알리는 사업도 마련됐다. 광주시 등은 전라도의 미래 발전상과 다가올 천년에 대한 기대를 주제로 ‘전라도 천년 캠페인’을 하고, ‘천년 기념 슬로건 및 엠블럼’을 제작한다. 전라도의 탄생부터 근현대의 전라도까지 시기별로 인문지리, 사회경제, 정치(역사적 사건) 등 전라도 천년의 역사를 총망라한 ‘전라도 천년사’도 편찬·보급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선정한 ‘전라도 대표 관광지 100곳’에서 청소년 문화대탐험단 운영, 전라도 아트·버스킹 페스티벌 공동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FINA 세계수영연맹 대표단 광주 방문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 경기장 설계 보완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FINA 세계수영연맹 코넬 마르쿨레스쿠 사무총장과 외근푸를 시설위원장 등이 15일 광주공항으로 들어오고 있다. 조영택 조직위원장이 이들을 영접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라도 방문의 해 ‘남도여행상품’ 日서 인기몰이

전원풍경·향토요리 인상적
3회에 150여명 이용
전남도, 3월까지 기간 연장

‘2018 전라도 방문의 해’를 기념해 기획된 ‘처음가는 한국 남도여행 상품’이 일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전남도는 광주시와 한국관광공사 후쿠오카지사(지사장 임용묵)와 공동으로 기획한 방한(訪韓) 상품이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여행상품은 일본 후쿠오카를 출발해 순천과 담양, 광주, 목포, 영암, 나주, 여수 등 전라도 주요 도시를 방문하고, 담양떡갈비와 남도한정식, 대동밥, 불낙 등 남도의 향토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2018 전라도 방문의 해’ 기념으로 일본 내 광주·전남지역 상품화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기획한 상품이었지만, 큰 반응을 얻으면서 현재까지 3회에 걸쳐 총 150여명이 상품을 이용했다. 북핵 및 미사일과 한일관계 냉각으로 침체한 최근 일본인 방한관광 시장을 고려

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현지의 반응이다. 전남도와 한국관광공사는 남도 여행상품 판매를 앞두고 일본 후쿠오카 유력 방송사인 ‘RKB 마이니치방송’에 전남도 관광 특집 프로그램을 기획, 방영해 광주와 전남지역에 대한 관심과 여행심리를 고조시켰으며, 당초 올 1월까지 설정된 여행상품 판매 기간도 3월까지 연장한 상태다. 여행상품에 참가한 일본인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 부산과는 다른 한국다운 전원풍경이 인상적이었다 ▲식사가 매우 훌륭하다 ▲즐거워 보기 힘든

남도투어다 등의 호평이 줄을 이었다. 방곡길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고등반 시장 다변화를 위한 마케팅에 주력해온 것이 주효했고, 특히 ‘전라도 방문의 해’를 계기로 일본인 관광객 유치 확대 가능성에 기대감을 갖게 됐다”면서 “전남만이 가진 매력에 일본인 관광객에게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후쿠오카 ‘한일교류 하카타회(일명 나드리회)’ 회원 15명이 전라도 방문의 해 참여를 위해 일반 여행객 40여명과 함께 15일부터 4일간 광주·전남지역 관광지들을 돌아볼 예정이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서삼석 위원장 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 임명

4개 상설 특별위원장 선임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서삼석(사진)·영암·무안·신안 지역위원장을 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4개의 상설 특별위원장을 선임했다.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시상록읍)이 서위원장과 함께 해양수산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전국농어민위원장은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국방안보특별위원장은 백군기 전 의원이, 환경특별위원장은 이재현 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과학기술특별위원장은



이상민 의원이 각각 맡게됐다. 신임 서 위원장은 “전국 섬의 65%, 갯벌의 42%, 해안선 45%가 있는 전남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며 “국가영토 개념으로 섬지역과 바다를 생각할 것이며 연근해와 도서지역민의 삶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놓고 발전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형배 광산구청장 지발위 국민소통위 호남위원장 위촉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15일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국민소통 및 지역협력 특별위원회 호남위원장에 위촉됐다. 민 구청장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촉장을 받았다.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 발전정책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로, 균형발전 기본방향 설정, 관련 정책의 조정·심의도 담당한다. 지역발전위 호남위원회는 지역 고유의 자원·잠재력을 활용해 ‘지역 주도 자립 성장기반’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치분권형 모델도 제시한다. 호남위원회는 수도권과 지방, 권역별 격차 해소는 물론 전북과 광주·전남 간, 광주와 전남 간, 전남 동·서부권 간의 불균형 문제 등 호남권역 안에서의 다양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도 자문한다. 호남위원회는 ▲대통령 호남공약사업과 국정과제, 현안사업 심의·제안 ▲저성장·4차산업혁명 시대 대비 호남혁신 전략사업 발굴·건의 ▲광주와 전남·북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 ▲균형발전장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오른쪽)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국민소통 및 지역협력 특별위원회 호남위원장 위촉장을 받고 있다.

에 요인 및 호남지역 차별정책 조사·연구 등을 담당한다. 민 구청장은 “지역에서 정책을 발굴해 실천하는 상황식 방법으로 명실상부한 국가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며 “호남권역 안에서의 불균형 문제에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지방선거 당내 경선 철저한 정책위주로 경쟁해야”

이병훈 민주 광주동남을 위원장

광주시장 출마 예정자인 이병훈(사진) 전 문재인 대통령 후보 광주 총괄선대본부장 겸 더불어민주당 광주동남을 지역위원장이 15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인 만큼, 수사기관의 조사보다는 중앙당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입지자를 위해 당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놓고 당내 조사와 입장정리 등이 온전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당원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선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은 철저하게 정책위주로 경쟁할 것을 제안한다”며 “입지자간 네거티브 경쟁은 선거에 대한 주민 피로도를 훨씬 가중시키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킬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어머니의 품 같은 민족의 영산

지리산의 사계

의회 남원시의회 NAMWON CITY COUNCIL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남원시의회